

비즈니스 인사이트 (Business Insight)

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도약

태국 전기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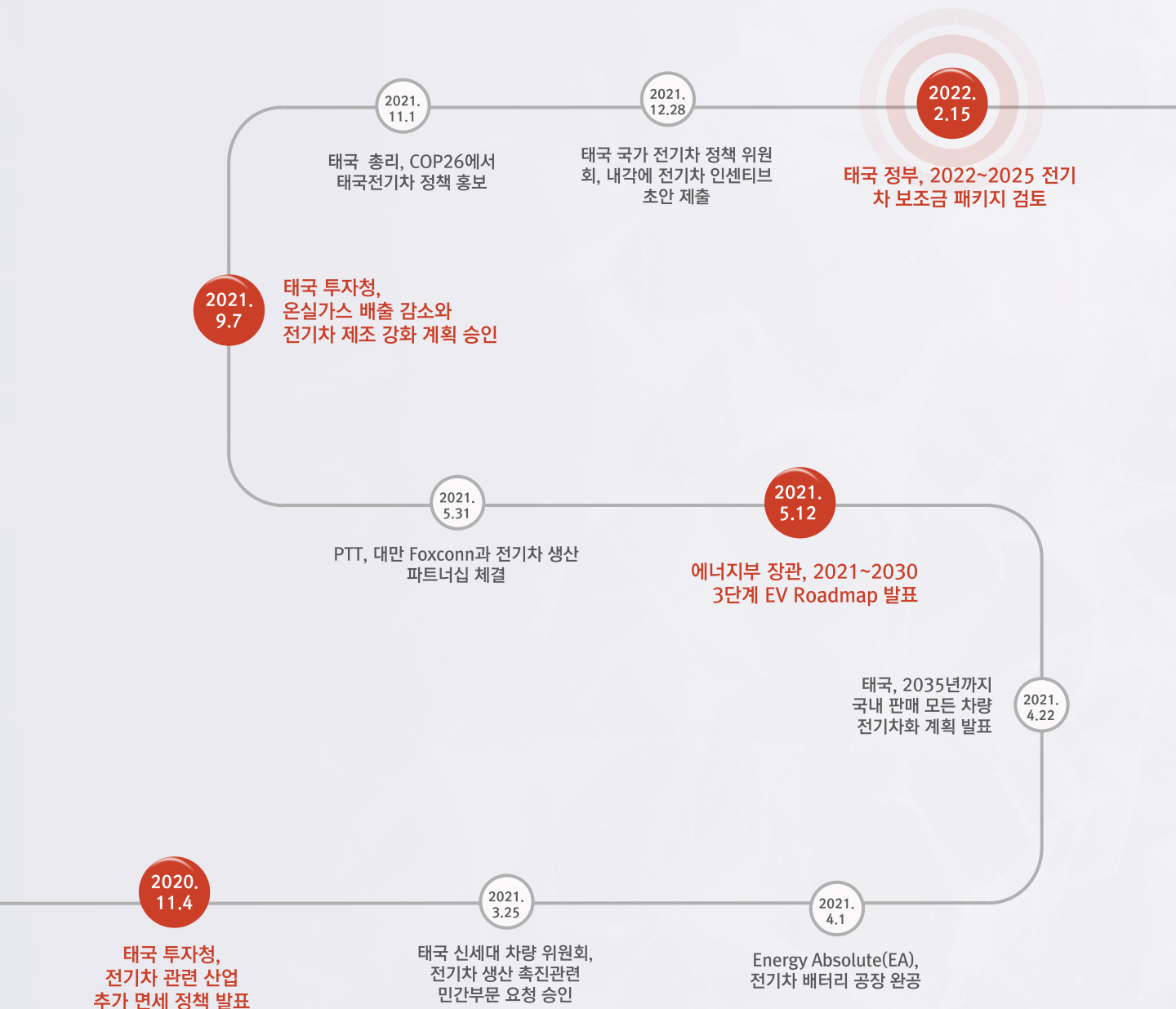
태국



전기차산업

2020.11 ~ 2022. 2 _ 태국 전기차 산업 관련 이슈

● 태국 전기차 산업 정책



태국, 아시아 전기차 허브 도약 위해 전기차 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태국 투자청, 2017년에 이어 2020년 전기차 관련 산업 추가 면세 계획 발표

2017년 태국 정부는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산업 육성을 위해서 면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이브리드형 전기차(HEVs)와 배터리식 하이브리드형 전기차(PHEVs), 배터리식 전기차(BEVs) 제조사와 어셈블러(assembler)가 면세 수혜 대상이다. 또한, 태국투자위원회(BOI, The Board of Investment)는 HEV 제조사가 기계류를 수입할 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PHEV 제조사에는 기계류 수입 면세에 더하여 3년간 법인 소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BEV 제조사는 5~8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태국 국내에서 EV 핵심부품 한 종류 이상 생산하면, 부품 한 종류당 1년씩 추가로 최대 10년까지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태국 정부가 2020년 추가 발표한 전기차 면세 정책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50억 바트(한화 약 1,821억 원) 이상인 PHEV 제조사와 BEV 제조사는 각각 3년과 8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BEV 제조사의 경우는 면세 혜택이 연구개발(R&D) 지출로 확대된다. 사업 규모가 50억 바트 이하인 PHEV와 BEV 제조사에 주어지는 면세 혜택은 3년으로 제한된다.

태국 정부, 2022-2025 전기차 산업 인센티브 패키지 ... 외국인 소득세 인하 계획도 포함

태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기차 산업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2022년과 2023년에 200만 바트(한화 약 7,283만 원) 이하 완성 전기차에는 수입 통관세가 40%까지 감면되고, 200만 바트 이상 700만 바트(한화 약 2억 5,484만 원) 이하 전기차는 수입 통관세가 20%까지 감면된다. 또한, 태국 정부는 전기차 차종에 따라 인센티브를 7만 바트(한화 약 254만 원)에서 15만 바트(한화 약 546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륜전기차(EV two-wheelers)도 1만 8,000바트(한화 약 65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태국 정부는 완성 전기차와 부분 조립 전기차에 대해서도 내국소비세 및 수입 통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입 인센티브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또한, 태국 국내 전기차 제조사가 이전에 수입한 전기차 수량 이상의 완성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2025년까지는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특정 산업경제구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현행 35%에서 17%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금 생활자를 포함하여 부유층 외국인 100만 명을 국내로 유치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계획이다.

태국, 전기차 산업 육성으로 탄소중립 달성 목표

태국 정부,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 30%로 확대를 목표로 한 3단계 로드맵 발표

태국 정부는 대기 오염 절감을 위해서 2020년대 말까지 승용차·이륜차·버스를 포함하여 국내 자동차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전기 자동차 비중을 30%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닛산 자동차(Nissan Moto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 국민 91%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를 소유한 태국 국민 가운데 43%는 3년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다면 전기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가 밝힌 3단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2021~2022)에서 정부는 전기 이륜차 판매를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한다. 두 번째 단계(2023~2025)에서는 전기차 생산량을 승용차 및 픽업 트럭 22만 5,000대, 이륜차 36만 대, 버스·트럭 1만 8,000대로 늘린다. 세 번째 단계(2026~2030)에서는 승용차 및 픽업 트럭 72만 5,000대, 이륜차 67만 5,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생산하게 된다.

태국 정부, 2035년까지 태국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전면 금지 목표

태국 정부는 2035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동남아시아 전기 자동차 생산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100%를 국내에서 제조할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태국의 전기차 비율은 약 1%에 불과한데, 충전소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부족에 더해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연기관차 생산 공장이 태국에 위치하여 소비자들이 추가 운송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태국 총리, COP26에서 태국의 전기차 정책과 탄소중립 달성 계획 홍보

쁘라윛 찬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태국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 대하여 홍보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기계류 개선 사업에 면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며, 특히 2035년까지 국내 전기 자동차 수를 1,500만 대로 확대하여 내연기관차 구동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십 체결

태국 최대 국영 기업 PTT, 대만 폭스콘(Foxconn)과 전기차 생산 관련 파트너십 체결

2021년 5월 31일 태국 최대 국영 기업인 PTT가 대만 폭스콘(Foxconn)과 전기 자동차와 부품 생산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태국 완성차 업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폭스콘은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조화로운 모빌리티 생태 환경(MIH ecosystem)’을 조성하고,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태국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는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에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고 투자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포드(Ford), 태국 자동차 공장 현대화에 9억 달러 투자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Ford Motor Co.)가 태국 자동차 공장 현대화에 9억 달러(한화 약 1조 905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 마즈다(Mazda Motor Corp)와 합자해서 조성한 오토얼라이언스(AutoAlliance Thailand) 공장을 포함한 자사 생산 시설에 투입된 로봇의 수를 두 배가량 늘리는 것이 포드가 내건 공장 현대화 계획의 골자다. 그리고 투자금 4억 달러(한화 약 4,846억 원)는 공급망 개선 사업에 쓰이게 된다. 포드는 태국에서 연간 약 27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다.

중국 장성기차(Great Wall Motors), 2024년 태국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 발표

중국 완성차 업체인 장성기차(Great Wall Motor Company)는 2024년 태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태국에 230억 바트(한화 약 8,358억 원)를 투자하여 동남아시아 전기차 생산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 장성기차의 계획이다. 또한 장성기차는 2023년에 태국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장성기차는 2020년에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로부터 라용(Rayong)주 공장을 인수했으며, 개보수 공사를 거쳐 연간 8만 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갖췄다. 장성기차는 2023년까지 아세안(ASEAN) 시장에 전기차 9종을 먼저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 협력체·현황

태국 전기차 산업

● 태국 전기차 산업 협력체 ● 태국 전기차 산업 현황

태국 전기차 협회

EVAT

Electrical Vehicle Association of Thailand

설립일

2015년 11월 6일

위치

KNOWLEDGE XCHANGE(KX)
King Mongkut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KMUTT), 방콕

설립 목적

2015년 초 태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발표 이후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관련 학계와 민간부문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설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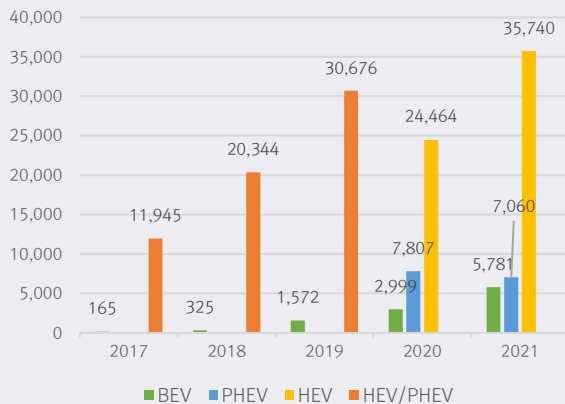
업무 범위

- 태국 전기차 시장 조사 및 현황 분석
- 전기차 관련 정책 제안
- 전기차 관련 컨퍼런스 주최(iEVTech)
- 전기차 충전소 관련 컨소시엄 구성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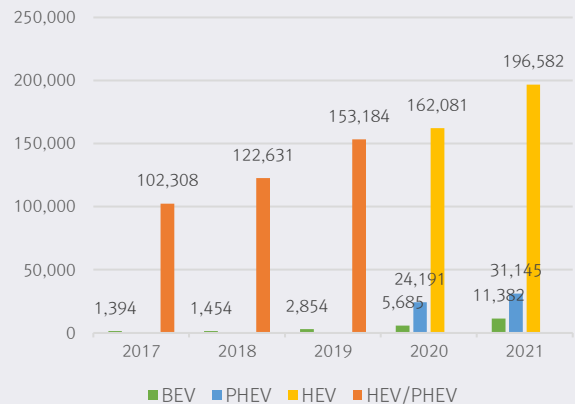
기업 114개사, 개인 43인

태국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 현황 단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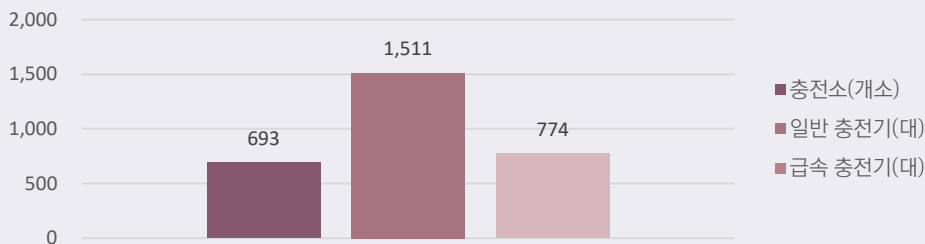
2021년 12월 31일 기준

태국 전기차 누적 대수 현황 단위: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태국 전기차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현황



2021년 9월 22일 기준

출처: <http://www.evatt.or.th/15708256/current-status>

Energy Absolute(EA)

Energy Absolut Public Company Limited

- 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설립년도	2008년
웹사이트	https://www.energyabsolute.co.th/

EA,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된 전기 버스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가동 시작...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태국 친환경 에너지 개발운영사인 에너지애플솔루트(EA, Energy Absolute)가 60억 바트(한화 약 2,180억 원)가 투입되는 버스용 배터리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EA는 차츄사오(Chachoengsao)에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리튬이온을 생산할 방침이다. EA는 전기 버스 어셈블러(assembler)인 동시에 차오프라야(Chao Phraya)강을 운항하는 전기 모터 보트 운영사이기도 하다. 배터리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기가와트시(gigawatt hour)의 생산 용적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버스 4,160대, 미니버스 3만 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9만 1,710톤이나 줄어들고, 디젤유 소비량도 연간 9,700만 리터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A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위한 용제를 생산하고, 배터리 성능시험을 위한 전해질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EA, ADB로부터 4,700만 달러 규모 지원금 유치

2021년 2월 에너지애플솔루트(EA, Energy Absolute)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15억 바트(한화 약 545억 원)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 용자에 합의했다.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태국 전역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EA의 계획이다. ADB는 태국 정부의 국내 교통수단 전기화를 통한 탈(脫) 탄소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가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용자 계약은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Climate Bond Initiative)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A는 2006년에 설립된 태국 최대의 재생 에너지 기업이다. EA가 보유한 6곳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는 664메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EA의 바이오디젤 생산 능력은 하루 최대 80만 리터에 달한다.

EVLOMO

-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앱 서비스 제공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립년도	2021년
웹사이트	https://www.evlomo.com/

EVLOMO, 로자나 산업단지 공사와 합작으로 10억 6,000만 달러 규모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미국 전기 자동차 기업인 이블로모(Evlomo Inc)가 태국의 로자나 산업단지 공사(Rojana Industrial Park Plc)와 10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845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고 촌부리(Chon Buri)에 8기가와트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로자나 산업단지 공사가 지분 55%를 보유하고, 이블로모는 나머지 4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일자리 3,000여 개가 창출되고 전기차 관련 첨단기술이 태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합자에 나선 양사는 사업 첫 단계로 1억 4,300만 달러(한화 약 1,732억 원)를 들여 1기가와트급 배터리 생산 공장을 먼저 완공할 계획이다. 예상 시공 기간은 18~24개월이다.

EVLOMO,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네트워크 확장 위해 2억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예산 확보

미국 전기 자동차 기업인 이블로모(Evlomo Inc)가 태국 전역에서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 예산 2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559억 원)를 확보했다. 이블로모의 투자 파트너인 미국계 핀테크(fintech) 투자 자문회사 디어 아일랜드 그룹(Deer Isle Group)이 태국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결정과 함께 디어 아일랜드 그룹의 임원들이 이블로모의 이사회 임원으로 위촉됐다.

EVme Plus

- PTT Public Co., Ltd.의 전액 출자 자회사
- 풀 서비스 EV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설립년도	2021년
웹사이트	https://evme.io/

PTT, 전기차 사업 확대를 위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EVme Plus 서비스 개시

태국석유공사(PTT, PTT Public Company Limited)의 자회사인 아룬 플러스(ARUN PLUS Co., Ltd.)는 국내에서 전기 자동차 도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이브이미플러스(EVME PLUS)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브이미플러스 앱은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수요, 선호에 딱 맞는 전기 자동차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3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기 자동차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방콕 시내와 인근 지역에서 차량 배송, 보험, 24시간 콜센터 안내, 주행 중 고장 접수, 긴급 배터리 교체 등 폭넓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브이미플러스 가입 고객은 전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전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Vme Plus, Nissan 전기자동차 40대 인수

태국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이브이미플러스(EVME PLUS)는 일본 완성차 제조사 닛산(Nissan)으로부터 LEAF 전기 자동차 40대를 인수했다. 닛산 LEAF 전기 자동차 모델이 탄소 무배출(zero-emission) 전기 자동차로서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서 50만 대 이상 판매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는 것이 이브이미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수비차 수드차이(Suvicha Sudchai) 이브이미플러스 최고경영자(CEO)는, 고객들은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서 이브이미플러스 앱을 다운받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닛산 LEAF 전기 자동차를 예약하면 바로 다음 날 차량을 받아서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사오 세키구치(Isao Sekiguchi) 닛산 태국 법인장은 자사의 LEAF 전기 자동차 40대를 이용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84톤을 줄이고, 나무를 8,360그루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사오 법인장은 닛산 LEAF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 시 300km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1회 충전당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모델 대비 60%나 높다고 설명하고, 고객들이 1년 동안 닛산 프리미엄 보장보험(Nissan Premium Protection), 5년간 주행거리 10만km까지 전기 자동차 시스템 보증, 8년간 주행거리 16km까지 배터리 소모 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Reuters, Thailand approves tax breaks for EVs, 'high potential' foreigners, 2022.02.22
- Bangkok Post, EVLOMO preps charging station network, 2022.02.22.
- Saur Energy, Auto Component Hub Thailand Plans EV Package, 2022.02.16.
- Nissan Motor Corporation, Nissan Thailand's largest 40 LEAF delivery to EVME PLUS, 2022.02.15.
- Just Auto, Great Wall to produce EVs in Thailand in 2024, 2022.02.15.
- Thailand4, EVme brings EV experience of full-services to your doorstep, 2022.02.04.
- Bangkok Post, EA serving up greener battery production, 2021.12.14.
- Nikkei Asia, Ford invests \$900m to modernize Thai auto factories, 2021.12.08.
- PR Newswire, Thailand BOI Approves Measures to Support Carbon Reduction, 2021.09.07
- The Phnom Phen Post, PTT, Foxconn join to make EVs in Thailand, 2021.07.01.
- The Nation, Thailand unveils roadmap to 30% EV production in 10 years, 2021.05.14.
- Bangkok Post, EV battery pact signed, 2021.04.24.
- Bloomberg, Thailand Lays Out Bold EV Plan, Wants All Electric Cars by 2035, 2021.04.22.
- The Edge Markets, Cover Story: Competition for EVs in Southeast Asia heats up, 2021.02.24.
- Asian Development Bank, ADB, Energy Absolute Sign Green Loan for Renewable Energy and Electric Vehicle Charging Network, 2021.02.11
- The Straits Times, Thailand aims for electric vehicles to form 30% of car production to tackle pollution, 2021.02.09.
- ASEAN Briefing, Thailand Issues Tax Incentives for Electric Vehicle Industry, 2020.11.06.